

## 갈뱅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sup>1)</sup>

— La notion de piété chez Calvin —

이 수 영

(교수 · 조직신학)

### I. 여는 말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경건과 학문”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학문만을 추구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 또한 중시할 뿐 아니라 경건을 학문에 우선 시키는 교육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곤 하는 표어이다. 이토록 경건을 중시하는 본 대학교이지만 경건 및 경건훈련에 관한 위기의식이 종종 일곤했다. 한편에서는 오늘날 본교의 경건훈련이 약화되었고 경건이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자성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이고 타율적인 경건훈련 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경건규칙강화에 대한 반발도 있어왔다. 학생들의 경건훈련을 담당한 실무부서에서는 경건훈련의 중심인 예배(경건회)에의 참여도를 높이고 예배에 임하는 경건한 자세를 바르게 하려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해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학문을 잘하

1) 이 논문의 내용 대부분은 1994. 9. 13~17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렸던 제6회 세계 갈뱅학술대회(International Cogress for the Calvin Research)에서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는 것이 곧 경건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경건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배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10여 년 전부터는 “경건과 학문”이 본교의 교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그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간간히 있어왔고, 이에 따라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와 토론을 벌인적도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위기상황이라거나 혼란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경건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사고의 정리를 더 늦추지 말고 시작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판단 위에서 볼 때 개혁교회의 전통 속에서 “경건과 학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깎쟁은 경건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작업의 하나이라 생각된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sup>2)</sup>고 한 깎쟁의 말은 그의 신학적 사고와 삶 속에서 경건(*pietas, piété*)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 것인가를 간명하면서도 충분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디모데전서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당신은 헛되이 다른 일로 지칠 이유가 없다. 만일 당신이 모든 열심과 능력을 다해 오직 경건에만 헌신한다면, 당신은 가장 가치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것과 같다.”(딤후 4:7 주석)

2) 기독교강요 3권 19장 2절. 이후로 기독교강요에서의 인용은 III, xix, 2와 같은 형식으로 될 것이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엔 부족한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답전 4:8 주석)

갈뱅이 경건에 이만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그의 주저(主著) 「기독교강요」의 80개 장(章) 중 어느 장도 경건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히 할애하지 않았음은 얼핏 보기에는 다소 놀라운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기독교강요의 어느 한 장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경건에다 할애했음을 발견할 때 놀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갈뱅이 기독교강요를 처음 출판할 때부터 그 후에도 줄곧 일종의 서문처럼 그 앞머리에 붙여 함께 출판한 그 당시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에게 쓴 공개서한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가장 훌륭하신 폐하시여!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후에 폐하께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ere pietatis summam et quic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1536년 라틴어 초판).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en laquelle est comprinse une somme de piété, et quasi tout ce qui est necessaire à cognoistre en la doctrine de salut”(1541년 불어 초판)

또한 갈뱅은 기독교강요의 초판의 제목을 “경건의 개요와 구원의 교리에  
서 알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강요”<sup>3)</sup>라고 붙였  
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논하든간에 그의 사고와 신학적 노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궁극적 관심이 경건에로의 가르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  
는가? 경건은 그의 신학의 한 주제라기 보다는 그의 신학 전체의 방향이며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갈뱅은 경건에 이토록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  
건에 관한 그의 사고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우리는 찾  
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단지 그의 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경건에 관한 그의 이해와 사고를 만날 뿐이다. 그러나 비록 경건에 관한 그  
의 언급은 체계적이지 않고 산발적이며 종합적이지 않고 단편적이라 하더  
라도 그 내용은 상당히 일관되고 분명한 어떤 사고의 덩어리임을 우리는 확  
인할 수 있다.

## II. 경건의 1차적 (또는 협의의) 의미

경건에 관한 갈뱅의 언급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경건이라는  
용어와의 관계 속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  
다. 경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산발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을 뿐 그 명확하  
고 종합적이며 결정적인 정의를 시도하지 않은 그에게서 그가 이해한 경건  
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 용어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다  
음의 두 인용문 속에서만도 그 용어들 중 상당수를 발견할 수 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

에게 은혜가 임한 때에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과 동시에 찬탄으로 가득하게 채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한다. 누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도를 경건과 하나님 경배의 열매와 증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와 떼어낼 수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알고, 자신을 그 분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경건하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칭송되는 것은 진실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꿈꿈이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진정으로 순종할 때 생기는 자발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행 10:2 주석)

위에서 우리는 깔뱅이 경건과 긴밀히 연관시키는 것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복종’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개념들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점이나 상호관계성이나 시간적 선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의미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며 모두가 함께 합쳐져서 진정한 경건을 이루는 1차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 1.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로 앞에서 인용된 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 경건의 열매와 증거라고 했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도 깔뱅이 경건을 말할 때 가장 자주 거론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그가 경건의 의미를 설명하거

나 그 구성 요소들을 열거할 때 종종 첫머리에 나타나곤 한다.

“참된 경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  
에 대한 신뢰, 거룩한 삶…”(I. xiv, 4)

그는 어떤 때는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동의어처럼 나란히  
언급한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경건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III. iii, 8)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쳐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건 생활의 초보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한다.”(III. iii, 8)

우리는 그가 기독교강요의 라틴어판에서는 “참된 경건(*vera pietas*)” (II, viii, 51)라고 쓴 것을 불어판에서는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la piété et crainte de Dieu*)”라고 쓰고 있음을 보기도 한다. 또 그는 라틴어로 “경건함으로(*cum pietate*)” (IV, iii, 11)라고 한 것을 불어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avec la crainte de Dieu*)”라고 옮겨 쓰는가 하면, 거꾸로 라틴어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으로(*serio Dei timore*)” (IV, xvi, 32)이라고 한 것을 불어에서는 “참된 경건 속에서(*en vraye piété*)”라고 바꾸어 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이해하는 경건의 의미의 한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 2. 하나님에 대한 경외(Reverence)

경건에 관한 갈뱁의 언급 속에서 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며 심지어는 나란히 붙어나오기까지 하는 말이 경외이다. 기독교강요, I, ii, 1-2에서 경건한 마음에 관련하여 길게 논한 후 이어서 갈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신앙이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I, ii, 2)

또한 그는 디도서 2장 12절 주석에서 불경건(impietas)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에 상반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cf. III, vii, 3)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두 단어 사이의 의미의 차이와 그 상호관계성에 대해서는 갈뱁 자신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증언하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하고(시 111:10; 잠 1:7) 다른 곳에서는 ‘지혜’ 자체라고 한다.(잠 15:33; 욥 28:28) ‘여호와를 두려워함’은 하나이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중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주인으로서의 경외를 받으실 고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서 처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를 아버지로서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공경’이라 부르시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부르신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신다.(말 1:6) 두 말을 구별하시면서도 서로 융합시켰다. 그러므로 주께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경외가 되어야 한다.”(III, ii, 26)

### 3. 하나님께 순종

우리는 갈뱅의 경건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 또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행 10:2 주석) 경외가 (I, ii, 2) 자발적이어야 하듯이 복종 또한 기쁨으로(libenter) 그리고 마음으로부터(ex animo)이루어져야 함을(행 10:2 주석)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4. 예배

갈뱅의 경건 이해 속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배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열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와 복종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예배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경건생활의 꽃이며, 경건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갈뱅의 정신으로서 인정받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율법에 따르면 경건한 자인 아나니아”(22:12)라는 사도 바울의 진



술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그(바울)는 그(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그의 경건이 … 알려졌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그의 사고 속에서 경건과 예배가 얼마나 불가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신앙이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I, ii, 2)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될 것이다.”(II, viii, 8)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 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II, viii, 28)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IV, xx, 15)

“두번째 이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신앙을 증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유지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를 요구하는 일을 떠 맡을 때에 경건을 보존하는 것이다.”(딤후 2:2 주석)

그리고 우리는 갈뱅이 두려움과 경외와 복종을 말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예배를 말할 때에도 그것이 “율법에 따르는”(행 22:12 주석) 또는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정당한”(I. iii, 2), 그리고 “마음으로부터”(행 13:50 주석) 또는 “영적이며, 순수한 양심에 의한” 예배이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에게 경건이라는 말은, 순수한 양심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를 의미한다... (딤후 4:7 주석)

## 5. 기도

기도 또한 갈뱅이 이해하는 경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 경건은 예배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그 자신이 말하듯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기도로 입증되기”(행 10:2 주석) 때문이다.

“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기도를 경건과 하나님 예배의 열매와 증거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다.”(행 10:2 주석)

“더군다나, 세상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거짓된 어리석음과 뒤섞고, 그것을 왜곡하기 때문에 고벨료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누가의 덧붙이는 말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것은 그가 외적인 예식으로 그의 경건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로 자신을 연단할 때마다 그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의 기도의 부지런함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 우리는 대개가 그렇듯이 그가 기도의 의무를 마치못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준한 복주심이 우리

를 초대하고 재촉하듯이 그가 기도에 열렬히 진심으로 몰두했고, 거기에서 신앙의 힘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고넬료의 분을 받아 끝까지 기도에 매진하도록 힘을 내야겠다.”(행 10 : 2 주석)

“경건은 인간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뿐 아니라 신앙과 기도를 포함한다.”(답전 4 : 8 주석)

## 6. 지식

우리는 이상에서 갈뱅이 이해하는 경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주된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외에도 앞선 인용문(III, ii, 23; 행 10 : 2 주석)에서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함”, “경탄”과 같은 것이 경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소들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건의 요소들을 진정으로 가능케 해주는 보다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지식”이다. 참된 지식은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며 그 근거이다. 이 지식 없이 경건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갈뱅의 글들은 설명이 필요없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식은 생명의 기초이며, 경건의 첫 입구이다. 영적인 은사의 그 어떤것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비추임을 받기까지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벤헤 1 : 3 주석)

“불경건 가운데, 나는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는 미신 뿐 아니라, 진리의 지식으로 계화될 때까지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을 비신앙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도 포함시킨다.”(딤후 2:12 주석)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I. iv, 1)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은 경건의 규칙이며, 따라서 이해의 참된 빛이 없이는 어떠한 신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행 17:4 주석)

칼뱅의 경건 이해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은 그가 기독교강요의 라틴판에서 경건(ad pietatem) (IV, xvi, 32)이라고 쓴 것을 불어판에서는 “올법을 두려워 하고 복종함과 복음을 아는 것(en la crainte et discipline de sa Loy, et en la cognoissance de son Evangile)”이라고 길게 풀어 쓴 사실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의 기초요, 출발점이요, 절대불가결의 요소인 그 지식이란 과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서 아는 지식이라고 본다. 이러한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서 아는 이중의 지식(cognitio duplex)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것을 보다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

님을 창조주와 구세주로서 또는 주와 아버지로서 이해하는 이 이중의 지식은 앞서 보았듯이 경건 속에서의 두려움과 경외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일 뿐 아니라, 모든 경건의 요소들을 발생시키고 또 참되게 하는 근원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사랑과 관심과 정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견해로는 깎깎의 하나님 이해의 본질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알고,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경건하다고 여겨질수 없다.”(행 10:2 주석)

“...오직 독자들에게 이점만을 인정하게 하라. 경건에 이르는 첫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그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얻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하라.”(II, vi, 4)

경건의 지식에 관한 깎깎의 사고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누가 복음 2장 25절의 주석에서 시므온의 경건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깎깎의 언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경건의 증거는 이스라엘의 위로의 기대 안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특히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회복을 믿는 신앙에 의존하는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참된 경건의 기초와 출발점이 되는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지식이다. 참된 경건을 발생시키는 지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갈뻥의 설명은 다음의 두 문장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 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과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며, 그에게서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종교를 낳게 하는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

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다.”(I. ii. 1)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혹은 경솔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의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최대의 열심과 주의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 지배하에 있음을 알고, 그가 만물의 안내자요 보호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창시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나 궁핍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를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완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재난에 대한 구재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주요,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며, 또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며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매우 무서운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람은, 비록 피할 길에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복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한 신자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경건치 못하며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그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다만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서는 있을수도 없는 몹서리나는 생각일 것이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신앙이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I, ii, 2)

이제 우리는 위의 두 인용문에 결정적으로 의지하고 앞선 모든 크고 작은 인용구들을 참고하여, 그가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던 경건의 종합적인 의미 규정을 시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 ◆ 경건은

- (1) 오직 한분의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 (2)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 (3)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하신 지혜와 선하심과 자비와 의와 심판 가운데 우주의 창조주, 지탱자, 통치자, 인도자, 보호자, 심판자가 되실



을 아는 것,

- (4)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구세주로서 아는 것,
- (5) 우리가 그 분께 모든 것을 힘입고 있음을 아는 것,
- (6)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만드시고 기초가 되심을 아는 것,
- (7) 우리가 오직 그 분께 모든 것과 도우심을 찾고 기다려야 함을 아는 것,
- (8)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 (9)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고 의지하는 것,
- (1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분께 기도하는 것,
- (11)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분을 찬미하는 것,
- (12)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 (13)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 (14) 이 모든것들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기쁘게 이루는 것이다.

### Ⅲ. 경건의 부수적(또는 광의의) 의미

지금까지 경건의 의미로서 또는 경건의 구성요소들로서 서술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경건은 신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관계된 것임이 명확해졌다고 보인다. 그러나 과연 갈뱅에게서 경건은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연관된 개념일 뿐인가?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이 경건에 관련하여 갈뱅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가? 경건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수평적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인가?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갈뱅이 경건에 관하여 말할 때

여러차례 율법의 두 서판을 언급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건과 의는 율법의 두 서판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삶의 순전성은 이 두 부분에 놓여있다.”(눅 2: 25 주석)

“그러나 이와 같이 고넬료는 경건한 자들의 순전성이 놓여있는 뛰어난 미덕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양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법규에 따라 정돈되었다. 그러나 율법은 이 두 서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누가는 고넬료의 경건을 칭찬한 후 둘째 부분으로 가서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칭송한다.”(행 10: 2 주석)

“그러나 경건의 시행은 율법의 첫째 서판에 놓여있다. 그러므로...”(딤후 2: 12 주석)

위의 언급들 속에서 우리가 일단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깡뻡이 경건을 율법의 두 서판 중 첫번째 서판에 연관시키며 따라서 두번째 서판에 관련된 “의” 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경건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건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깡뻡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 속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이며, 반면에 의는 인간을 향해 시행된다.”(딤후 2: 12 주석)

“이제 우리는 회개에서 생기는 열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것

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이다.”(III, iii, 16)

## 1. 인간을 향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경건

경건의 어의적 의미 이해에 있어서 갈뱅이 경건을 의나 사랑과 구별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그러나 결코 그 양자 사이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한다. 율법의 두 서판이 각각 서로 구별되는 일면을 가지면서도 결코 나누이지 않으며 그 둘이 더불어서 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끼리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갈뱅이 이 둘의 의미를 구별할 때에는 그것들을 서로 떼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둘 사이의 밀접하고 불가분리한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인용된 사도행전 10장 2절 주석에서도 갈뱅의 의도는 경건과 사랑(Charity) 사이의 차이 그 자체 보다는 양자간의 관계성과 연속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넬료는 경건한 자들의 순전성이 놓여있는 뛰어난 미덕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양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법규에 따라 정돈되었다. 그러나 율법은 두 서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누가는 고넬료의 경건을 칭찬한 후 둘째 부분으로 가서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칭송한다. 따라서 삶을 잘 정돈하기 위해선 믿음(faith)과 신앙(religion)이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없다면, 남아있는 모든 미덕들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행 10:2 주석)

여기서 칼뱅이 힘주어 밝히려고 한 것은, 첫째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의나 기타 여러가지 덕목들이 참되고 가치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신  
 앙과 경건에 기초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참된 경건  
 은 반드시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의 봉사에도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 증명되  
 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경건한 자의 온전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두 인용문에서도 같은 생각이 엿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선한 양심과 믿음,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머리처럼 위에 놓이고, 그 다음에 그  
 것으로부터 사랑이 연유하는가를 본다.”(II. viii. 51)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  
 령하고… 또 한 부분은 진실과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  
 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 주신 의  
 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IV. xx. 15)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과 정직(iustitiam)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선(eleemosyha)이라는 낱말은 본래는  
 자비(misericordia), 즉 마음의 내적인 감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외향적인 봉사로 바뀌어진 것이다.”(행10:2 주석)

“...경건은 사람들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뿐 아니라, 신앙과 기도도 포함한다.”(딤펴전 4:8 주석)

## 2. 삶 전체와 관련된 경건

갈뱅이 경건을 사람들 사이(inter homines)에서의 의와 사랑과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 하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에 있어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관련된 문제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상 그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딤펴전 4:8 주석)라고 말하고, 경건을 “삶의 순전성”(눅 2:25 주석)과 연관시켜 생각하며 그것을 “삶을 본래대로 잘 정돈하는 것”(행 10:2 주석)으로 보고자 한다. 아래의 글들도 그에게서의 경건이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III. xix, 2)

“그(베드로)가 삶을 언급했을 때, 그는 즉시 경건을 그것이 마치 삶의 영혼인 것처럼 덧붙인다.”(벧후 1:3 주석)

“그러나 이와 같이 고벨료와 경건한 자들의 순전성이 놓여있는 뛰어난 미덕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양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법규에 따라 정돈되었다.”(행 10:2 주석)

“그는 이제 우리의 삶을 잘 정돈시켜주는 법규를 제정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전의 삶의 방식의 두 가지 모습은 경건치 않음과 세속적인 정욕이다.”(딤후 2:12 주석)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갈뻥에게서 경건의 개념이 거룩(holiness)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참된 경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신뢰, 거룩한 삶...”(I, xiv, 4)

“경건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된 우리를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킨다.”(III, vii, 3)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은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III, xix, 2)

#### IV. 경건의 기원(원천)

이러한 경건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으로 갈뻥이 생각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한 그의 첫번째 사고는 경건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혼란한 지식이 종교의 기원인 경건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오직 신자의 마음속에만 심겨지는 것이다.”(I, iv, 4)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연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자연질서를 넘어서서 그가 택하신 이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시는 은사들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건과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안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것을 겸손하게 요구하고 그들이 받는 모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구원을 향한 모든 경건과 모든 도움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에 기원하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베드로는 여기서 그것들을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으로 부터 떼어내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약간의 미덕도 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벤 후 1:3 주석)

둘째로 경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지는 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성령의 칼로 무참히 살해되어 무로 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경건 생활의 초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III, iii, 8)

“모든 사람이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III, xxiv, 13)

셋째로 경건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말씀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도 족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갈뱅이 기독교강요 라틴어판에서 “경건”이라고 쓴 것을 불어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고 복종함과 그의 복음을 이는 것”(IV, xvi, 32)과 “그의 거룩한 말씀”(IV, xx, 32)이라고 바꾸어 쓰고 있는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그의 말 속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건전한 가르침은 경건의 규칙이다.  
그러므로 오성의 빛 없이는 어떠한 신앙도 없을 것이다.”(행 17:4  
주석)

## V. 경건과 믿음

이제 우리는 경건과 믿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소고를 마치려 한다. 지금까지 경건의 의미와 그 관련된 사항들로서 갈뱅이 언급한 모든 것은 그대로 그가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바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갈뱅에게서 믿음(*fides*)과 종교(*religio*)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단어로서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경건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경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연스럽게 믿음과 종교가, 혹은 둘 다 나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예: 행 10:2; 17:4; I, ii, 1; 2 주석). 물론 “경건에서 종교가 생겨나며”(I, ii, 1:2)이라든가 “종교의 원천은 경건이다.”(I, iv, 4) 혹은 “경건은 믿음과 기도를 포함한다.”(딤펴 4:8 주석) 등의 표현들이 가끔 있지만 이것들 사이의 인과적 선후관계나 개념상의 대소관계를 깨어 묻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어들은 단순히 나란히 함께 쓰이든  
가 아니면 서로 바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4)</sup>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명  
령하고, 또 한 부분은 진실과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한다.”

(IV, xx,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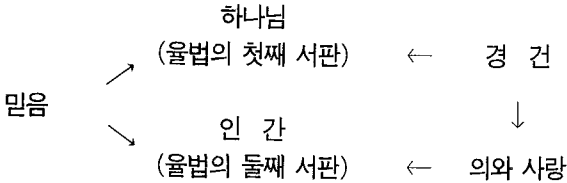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앞머리에 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바뀌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  
나는 것이다.”(II, viii, 51)

그렇다면 경건은 믿음이나 종교와 아무런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단순한  
제3의 단어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갈뱅의 신학적 사고 속에서 그 고유한  
역할을 갖는 것인가? 갈뱅 자신은 경건과 믿음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와 그  
상호관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단지 지금까지 고찰  
한 바에 의거하여 우리 자신의 조심스런 판단을 내려 볼 뿐이다. 앞서도 이

4) 다음의 대조표 속에서의 몇 가지 예도 그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라틴어판	불어판
III, xxiv, 13	in pietate	en foy et en piété
IV, xiv, 19	vera pietas piété et relipion	
I, ix, 제목	Omnia pietatis principia	tous les principes de religion
IV, i, 4	ad verae pietatis cultum	au service de Dieu et à la vraie religion

미 말했지만 믿음에 관한 갈뱅의 설명들과 경건에 관한 그의 언급들 사이에는 그 내용과 사용되는 어휘들에 있어서까지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앞에서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경건을 엄밀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사람을 향한 의나 사랑으로부터 구별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러한 구별을 말하는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갈뱅 자신의 설명법을 빌어 말하자면, 믿음은 율법의 두 서판 모두에 관한 것이라면 경건은 본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첫째 돌판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갈뱅의 사고라는 것이다. 갈뱅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 사이를 구별하면서도 결코 분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긴밀히 결속시키려 했다고 해도, 역시 그 구별이 또한 경건과 믿음을 엄격하게 전적으로 일치하는 말들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본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갈뱅이 경건을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며, 믿음이 참믿음이 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이고, 신자들의 삶의 모든 덕목들의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증해 주는 생성적 힘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